

킹메이커 나선 김무성... 대선판도 '출렁'

안철수·반기문과 연대 가능성 내비쳐

유승민 TK 맹주 부상·남경필 '제4지대론' 변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범(汎)여권의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거리고 있다. 나아가 김 전 대표가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개헌론에 탄력이 붙어 전체 대선판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당장 탈당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지만 탄핵 추진 과정에서 탈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김 전 대표는 '킹메이커'를 자임한 만큼 다양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에 대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주 훌륭한 분이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치세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고 국민 선택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으로서도 새누리당 대선 보수진영에서 대안 세력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 총장이 내년 1월 귀국 후 정치 결심을 굳힌다면 새누리당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에서 어떤 진영과 손을 잡느냐도 대선 판도를 좌우할 큰 변수다.

최근에는 보수진영 대표 주자로서 유승민 의원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 의원의 가능성을 보고 주변에 의원들이 물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 판도에는 지난 22일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도 주요 변수다. 남 지

사는 '제4지대'를 출범해 야당과도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4지대가 기존 극단적인 좌우 진영을 배제하고 중도가 모이는 '제3지대론'의 연장선이기보다는 기존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아닌 새로운 교섭단체, 즉 '제4 정당' 창당에 가까워 보인다.

대선 판도는 개헌과 맞물려 더욱 크게 출렁거리 수 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데다, 3당 밖에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최근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남 지사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선 김 전 대표의 개헌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 개헌 추진 흐름에 시선이 모인다. 새누리당 안팎에는 김 전 대표와 생각을

함께하는 개헌론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여야가 꾸린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절반을 넘는 65명이 참여한 상태다.

야당의 경우도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민주당에선 84명, 국민의당에선 33명이 가담하고 있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다.

김원기·임재정·김형오 전 국회의장, 유인태·문병호·조해진 전 의원 등 원외 정치인과 원로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헌법개정국민추진회의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후에는 정치권에서 권력구조개편 중심의 개헌론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추미애 말실수 할 줄 알았다"

나주서 핵심당원 연수 강연... 잇따른 부적절 발언 비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똥볼"을 잘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했다"며 최근 구설이 잦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호남지역 핵심당원 연수 강연에서 "오늘 신문에 추 대표가 말실수를 많이 한다고 나왔다"며 "추미애가 당 대표 됐을 때 '실수할 거다, 똥볼 많이 잘 거다'고 했는데 제가 점쟁이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가 전날 광주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공조해야 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부역자'라는 표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의 '부역자'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40명이 탄핵 정국에서 야권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은 깨진다"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고 백만 톤

불민심을 본 비박계 30~40명은 새누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원체 민심이 거세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당원에게 이날 새누리당을 제치고 전국 정당지지도 2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당부도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당에서 제일 유력한 대선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라며 "성공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게 당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안철수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전정배 전 대표에게도 대선후보로 나서서 피나게 경쟁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전정배, 정동영 의원이 서로 책임을 나눠 당이 잘되도록 협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회에서 싸우며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서 우리당이 잘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통령 탄핵 합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지역 현안 챙기기 독심 행보

'지역균형' 내세워 대구 SOC 예산 견제...예결위 심사 주도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지역균형예산'을 지렛대로 내건다.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바리 동철'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사리에 맞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한 김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지역 편중을 이유로 대구순환도로 건설 등 영남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 예결위 소위가 일시 정회되는 등 소동도 일어났으나 김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균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막판 증액 예산 심사를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 심사의 원칙을 지역균형예산 실천과 양극화를 해소할 복지예산 확충에 두고 있다"며 "노동,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예산 편중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 고착화됐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 예산과 관련, 김 의원은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 조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 등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 예산 반영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세입에서는 법인세 인상, 세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등만 잘 협의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

친박 "탄핵 세력과 못 가"...분당 초읽기 "대통령 탄핵" 80%...새누리 3당 전략

새누리 최고위 회의 날선 비판

새누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하면서 분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 전 대표의 여러 언행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당을 떠나라"고 맹비난했다. 여기에 유다, 베드로, 배신자, 변절자 등의 단어들도 쏟아졌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탄핵 세력과는 당을 같이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류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 비주류 내에서 추가 탈당의 움직임은 일하지 않고 있다. 비주류가 민심을 토대로 당의 세력 교체를 통해 리모델링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부터 특검, 국회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펼쳐지는 민심의 방향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26일 예정된 5차 광화문 촛불집회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주류가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면 분당이 불가피하지만 비대위 체제 출범 등으로 당분간 통합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리얼미터 조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9%포인트나 상승한 33.4%로, 1위 자리를 지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17.9%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르며 2주째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새누리당은 2.3%포인트나 떨어진 16.7%로,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리얼미터 조사상 처

음으로 국민의당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 22~23일 별도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포인트)에서는 찬성이 79.5%로, 반대(14.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0.8%포인트 오른 21.2%로 1위 자리를 유지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0.7%포인트 하락한 17.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양새마을금고